

8월 가정통신문

매미 소리가 잦아들고 늦여름 바람이 선선해지는 8월 다섯째 주입니다.
처서를 지나면 무더위가 서서히 물러가고
가을이 조금씩 다가오는 자연의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.
늦여름의 하늘을 바라보며 계절의 흐름을 느껴보는 것도
마음에 작은 여유와 계절의 감성을 더해주는 좋은 시간입니다.
자연이 주는 변화 속에서 건강과 평안을 함께 챙기시길 바랍니다.

[8월 넷째 주 프로그램]

월	화	수	목	금
신체체조	신체체조	신체체조	신체체조	신체체조
여가프로그램	인지프로그램	인지프로그램	여가프로그램	인지프로그램

[공지사항]

- * 9월 11일 생신 맞이한 어르신들께 축하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.
김*숙어르신 / 박*순어르신 / 복*자어르신
(날짜는 요양원 운영의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)
- * 코로나19 전염병이 확산됨에 따라 **연회 시** 방역수칙을 준수해주시기 바랍니다.
----- 【 사전예약 】 【 마스크착용,손소독 】 -----

[드리는 말씀]

♣어르신들을 섬기는 2주년을 맞이하며♣

존경하는 보호자님들께,
벌써 2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. 그동안 보호자님들께서 주신 사랑과 지혜에 감사하며, 저희는 매일 더 나은 마음과 손길로 여러분을 섬기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. 여러분의 따뜻한 미소와 삶의 경험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.
어르신들을 섬기며 배운 것들은 무엇보다 값진 경험이며, 그 무엇보다 소중한 인연이었습니다. 앞으로도 변함없이 존경과 사랑으로 여러분께 다가가며, 더욱 따뜻하고 풍성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.
어르신들께서 더 건강하고 행복한 일상을 보내실 수 있도록 함께 걸어가겠습니다. 2주년을 맞이한 오늘, 그동안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, 앞으로도 변함없이 함께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.
감사합니다.